

올 수능 지원자 광주·전남 1500명 이상 줄 듯

학령인구 감소 영향 전국 60만명 밀돌아

새 교육과정 적용 2021년엔 48만명 예상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가 6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와 전남지역 수능 지원자 수도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중로학원하늘교육 등에 따르면 종로학원하늘교육은 2018학년도 수능 지원자(원서접수자 기준)가 59만7000명 수준으로 전년보다 9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3년간 고교 3학년 재학생의 수능 원서접수율(평균 79.3%)과 전체 지원자

가운데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율(평균 23.5%) 등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광주와 전남 수능 응시자 수도 최소 1500명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치러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광주(2만744명)와 전남(1만8196명)에서 모두 3만894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능 응시원서접수 등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를 보면 수능

지원자는 2011학년도에 약 71만2200명이었지만 2017학년도에는 60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6년 만에 10만명 이상(14.9%) 줄어든 셈이다.

수능 지원자는 2000년대 중후반 수능을 자격 기준으로 쓰지 않던 '고교 3학년 1학기 수시모집' 비중이 늘고 등급제 시행(2008학년도) 등 시험체계가 바뀌어 수험생의 부담이 커지면서 50만명대를 기록한 적 있다.

2010학년도에는 출산율이 높았던 1991년생이 주로 입시를 치른 데다 1학기 수시가 폐지되면서 60만명대를 회복했지만 2012학년도부터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지원자가 전년 대비 2만5000명 이상(4.0%) 급감했다. 1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지원자가 48만명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광주는 최소 700~1000명 정도 응시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33명보다 많은 수치인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원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세계 청년들 젊음 만끽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진행된 '2017세계청년축제' 참석자들이 메인 무대의 공연을 보며 함성을 지르고 있다. '청년은 한다(Youth Do It!)'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세계 16개국 200여 명을 포함해 15만명이 찾아 젊음과 광주를 만끽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울대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15.5% 인하

사립대도 5~15% 내릴 듯

서울대학교가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를 15.5%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5~15% 안팎의 전형료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일 서울대학교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수시·정시를 합산한 대입 전형료 총액의 15.5%를 인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서울대의 개선안에는 전체 전형의 전형료 합계인 90만5000원의 15.5%인 14만원을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각 전형별 세부 인하 폭은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 관계자는 "정부의 입학전형료 인하 방침에 따라 고 학부

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 폭을 최대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날까지 대입 전형료 인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분교를 포함한 204개 대학 가운데 4일까지 70여곳이 입학전형료 책정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미 주요 대학 총장들이 인하 방침을 밝힌 상황여서 국·공립대는 5% 이상, 사립대는 최대 15% 안팎으로 전형료를 내리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이 다음주까지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전형료 책정 계획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자살자 유가족 70% 우울·불면·불안 경험”

복지부 ‘자살유가족 실태 조사’

자살로 가족을 잃으면 우울·불면·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게 되며, 육체적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한 '자살유가족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1만3000여명의 자살이 발생해 8만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 중인 자살유가족 7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 우울·의욕저하(75%), 불면(69%), 불안(65%), 분노

(64%), 집중력·기억력 저하(60%) 등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중 11%는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또 호흡곤란·두근거림(60%), 두통(57%), 근육통·요통·전신 피로(53%), 눈 피로·이명(51%), 소화불량·복통(43%) 등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위염이나 위궤양, 고혈압 등 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경험도 18%에 달했다.

조사 대상 72명 중 31명(43%)은 인지하게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고, 이 중 9명은 자살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됐다.

문의처는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나 보건복지콜센터(129)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6 달출몰 19:09
해질름 19:30 달지름 05:02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 많음	27/34	보성	구름 많음	24/33
목포	구름 많음	27/34	순천	구름 많음	27/35
여수	구름 많음	27/34	영광	구름 많음	26/33
나주	구름 많음	26/34	진도	구름 많음	26/31
완도	구름 많음	26/33	전주	구름 많음	26/33
구례	가끔흐리고 비	25/34	군산	구름 많음	26/32
강진	구름 많음	25/34	남원	구름 많음	25/33
해남	구름 많음	26/33	축산도	구름 많음	25/30
장성	구름 많음	25/32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0	02:08
	19:22	13:57
여수	간조	만조
	02:56	08:44
	14:45	21:24

◇주간 날씨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26/32	25/30	25/31	24/33	24/33	25/33	25/32

◇생활지수

- 위험
- 높음
- 자위선
- 매우높음
- 피부질환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고시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지난 4일 확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를 내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

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급액을 함께 기재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용가리 과자’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식약처, 액체질소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광주일보 8월 4일자 6면)과 관련해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6일 밝혔다.

A(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

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나,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 전환 아파트 24/35PY

분양문의 (062) 610-9232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